

코로나에 車시장 살얼음판...친환경차만 '싱싱'

2월 국내차 생산 내수·수출 모두 급감 현대·기아·지엠 등 조업감소 생산 줄어 전기·수소차 국내 판매·수출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국내 자동차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부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에 차질을 빚었던 탓에 생산이 급감했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내 자동차 생산·내수·수출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국내 판매와 수출은 모두 증가하면서 선방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2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잠정)' 자료에 따르면 2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년동월 대비 생산 26.4% ↓, 내수 18.8% ↓, 수출 25.0% ↓ 등 모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우선 생산은 와이어링 하니스 등 일부 중국산부품 재고 부족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6.4% 감소한 18만 9235대에 그쳤다.

10.6일간 조업이 감소한 현대차는 전년동월 대비 32.5% 감소했고, 8.9일 조업에 차질을 빚은 기아차 역시 생산차질과 카니발, 스포티지 등 구형모델의 부진 등으로 27.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수를 보면 전년 대비 18.8% 감소한 9만7897대가 판매됐으며, 국산차 가운데 쏘나타(6.9% ↑)와 K5(3.8% ↑) 등은 신차효과로 전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여타 차종은 코로나 여파에 전반적으로 판매가 22%(8만1064대) 감소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출시된 GV80과 소형SUV 베뉴 등 신차효과가 있었으나, 기존 모델의 부진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6.4% 감소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경소형차와 일부 구형모델의 판매 하락에도,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소형SUV 셀토스를 비롯해 신형 K5의 인기로 13.7% 감소폭이 둔화돼 13.7%만 줄었다.

또 수입차 중에서는 일본계 브랜드가 52.5%나 급감하면서 부진을 겪었으나, 벤츠를 비롯한 독일계 브랜드가

23.4% 증가하면서 코로나 여파에도 전년동월 대비 0.8% 증가한 1만6833대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은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25.0% 감소한 12만3022대를 기록했다. 다만 고부가가치 차량인 SUV와 친환경차의 수출비중 확대에 수출금액은 16.6%가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적었다.

특히 친환경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내수와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부진 없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전기차·수소차의 내수판매는 각각 48.7%, 515.3% 증가했고, 수출 역시 각각 10.5%, 136.8% 늘어나는 등 모두 증가했다.

또 전기차는 연속 31개월, 수소차는 연속 20개월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를 이끌었다.

전기차는 2018년 2월 1287대에서 지난해 2월 4076대(216.7% ↑), 올해 2월 4502대(10.5% ↑)도 증가했다. 수소차도 같은 기간 2대→38대(1800% ↑)→90대(136.8% ↑)로 늘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투르크메니스탄에 '에어로시티' 400대 공급

6000만 달러 규모

현대자동차는 현대종합상사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교통청(Ministry of Transport)에 27인승 대형 버스 '뉴 슈퍼 에어로시티' 40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급 계약은 약 6000만 달러(733억원) 규모로, 단일 버스 계약으로는 2016년 500대 공급 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큰 규모이다.

현대차는 2008년 500대를 시작으로 4년마다 투르크메니스탄 교통청에 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2년 200대, 2016년 500대 등 현재까지 총 1200대를 공급한 바 있다.

이러한 공급을 바탕으로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슈가바트(Ashgabat)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모두 현대차 '에어로시티'이며 올해 신규 계약된 '뉴 슈퍼 에어로시티'도 시내버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뉴 슈퍼 에어로시티'는 기존 차량 대비 후방 카메라, 후방 경보 장치 등 안전 및 편의 사양을 대폭 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오는 5월부터 버스 생산을 시작해 '투르크메니스탄 중립국 선포일' 25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12월 12일에 맞춰 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 현대차 에어로시티의 우수한 성능과 품질이 투르크메니스탄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아 영광이다"며 "2008년부터 이어져온 버스 공급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르노삼성 '뉴 마스터' 밴·버스 모델 국내 출시

르노삼성이동차는 중형 상용차 '뉴 마스터' 밴과 버스 모델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르노의 상용차 주력모델인 마스터는 1980년 1세대 출시 이후 2011년 3세대 모델이 나왔다. 국내에는 지난해 10월 3세대 모델이 처음 들어왔다.

뉴 마스터는 3세대의 부분변경 모델로, 신차 수준의 디자인 변화와 안전·편의 사양 개선이 이뤄졌다.

뉴 마스터 실내는 신형 대시보드와 스티어링 휠, 기어노브를 적용하고 신규 클러스터와 3.5인치 TFT 디스플레이를 설치했다.

뉴 마스터 밴 모델은 2.3ℓ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이 최고출력 150마력, 최대토크 39.3kg.m의 힘을 발휘한다. 버스 모델은 최고출력 163마력, 최대토크 38.7kg.m이다. 밴·버스 모두 이전 모델보다 복합연비가 개선돼 밴 S 모델은 11.1km/ℓ, 밴 L 모델은 10.9km/ℓ이다.

가격은 뉴 마스터 밴S 2999만원, 뉴 마스터 밴L 3199만원, 뉴 마스터 버스 13인승 3729만원, 뉴 마스터 버스 15인승 4699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올 뉴 아반떼' 티저 이미지 첫 공개

다음달 출시 예정

현대자동차는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준중형 세단 '올 뉴 아반떼'의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최근 공개했다.

'올 뉴 아반떼'는 2015년 6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나온 7세대 모델이다. 현대차는 ▲미래를 담은 과감한 디자인 ▲일상을 혁신하는 최첨단 안전 편의 기술 ▲효율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주행 성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밝혔다.

스페인어로 '앞으로 전진, 발전'이라는 뜻의 아반떼는 1990년 처음 출시된 이후 전세계 누적 약 1380만대 이상 팔린 현대차의 베스트셀링 모델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쓴 준중형 세단이



다. 현대차는 '올 뉴 아반떼'에 신규 플랫폼을 적용해 무게중심이 낮고 안정적인 설계를 구현했고, 현대차 디자인 철학 '센슈어스 스포티니스(Sensuous Sportiness)'를 바탕으로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18일 오전 11시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힐리우드에서 세계 최초로 '올 뉴 아반떼'를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 이벤트를 실시하며, 현대차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서도 온라인 생중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기아차, 서비스협력사에 22억 지원

3~5월 가맹금 감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협력사를 위해 총 22억원 규모의 가맹금 지원에 나선다.

현대·기아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 손실을 겪고 있는 서비스협력사 블루렌즈와 오토큐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가맹금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3월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블루렌즈 143개소와 오토큐 73개소의 가맹금을 전부 면제하고, 이외 지역 블루렌즈 1231개소와 오토큐 727개소의 가맹금은 50% 감액한다.

오는 4~5월에는 전국 블루렌즈와 오토큐 가맹금을 50% 감액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3개월 동안 약 14억1000만원, 기아차는 약 8억2000만원의 가맹금을 서

비스협력사에 지원하게 된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통받는 서비스협력사의 어려움에 공감해 3개월 동안 가맹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현대자동차그룹은 서비스협력사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현대자동차그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0억원을 기탁했으며, 협력사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부품 협력업체에 1조원 규모의 자금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3월호

2월 29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문화광주, 컬렉션을 브랜딩하라

- 매력적 컬렉션으로 브랜딩에 성공한 미술관들
- 광주시립미술관 컬렉션의 역사와 현재
- 남도미술관, 박물관들의 대표 컬렉션

문화 기획

5·18 40주년의 의미 되새긴다
2020 광주의 문화성전

클릭, 문화현장⑤-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 & 대통령 기록관

워라밸시대, 문화관광이 뜬다⑥-눈호강, 마인 강변 박물관 거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시디자인, 행복한 도시 풍경의 완성③-서울은 지금 즐거움과 안전을 디자인하는 중

예향 초대석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최태지

"단원들 창작에너지 가득, 지원 기대"

문향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송해남이 낳은 작가들과 작품들 땅끝순례문학관

화제의 아카데미

지역성 넘고픈 오스카 '기생충' 원했다

유현준의 도시건축⑦

의자는 건축의 '줄기세포'

전시리뷰

하루.K의 <와신짬뽕>전

새봄 기획

새봄엔 역시 봄꽃 전문가가 추천해 드립니다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⑥

연예인 죽음으로 내모는 사생활 사냥꾼들

스포츠 이야기

KIA타이거즈 플로리다 스포링 캠프 현장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해남①

까칠한 소녀 얼굴에 웃음 준 반려견 '사랑이'

바쿠야쿠 난도 한 바퀴-나주

역사 타고 문화 속으로 나주 시간여행

-생생한 천년고도의 숨결
-특 쓰는 흥어, 달콤 멜론